

■ 지방선거 핫코너

모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 돌연 취소에 '시끌'

광주지역 모 일간신문사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돌연 취소되자 일부 민주당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 후보들이 다른 후보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신문사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용섭 의원이 강운태 의원과 오차범위에서 접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사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1일자로 보도하려 했다

윤기선 "농산어촌 학교 집중 투자해야"

윤기선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일 "현 정부가 추진중인 자율형사립고는 창의적 인재를 원하는 세계적 추세를 읽지 못하고, 일들만을 원하는 경쟁지상주의적 교육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화 "민주당 후보만 TV토론, 편파적"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에 대해 집권 여당 후보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병완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이병완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후보는 2일 오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적인 시장 선거에 나선다.



윤난실 "민주당 심판 대표주자 되겠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일 "민주당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권력"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하는 광주의 대표 주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준영 선거사무실 개소...경선전 박차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일 오후 목포시 상동 대림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앞으로 4년 동안 기업 2천 개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10만 개 만들어 인구 200만 명의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영산강 저층수, 목포 방류 안돼"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1일 "한국 농어촌공사가 영산강 수질개선을 한다는 명분으로 오니(찌꺼기)나 다름없는 최악의 수질인 저층수를 목포 앞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정당공천제, 입장 표명하라"

이형석 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일 "과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던 송광은 북구청장이 민주당 공천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기병 "오늘 선거사무실 개소"

이기병 전남도의원(나주 제1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는 2일 오후 2시 나주시 성북동 대공빌딩 3층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재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전우근 "내일 선거사무실 개소"

전우근 광주시의원(북구 4선거구) 예비후보는 3일 오후 3시 북구 용봉동 광주은행 용봉 북 지점 3층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목포시장 예비후보 3명 단일화 합의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목포시장 예비후보 3명이 단일화에 합의했다. 목포시장 예비후보인 박홍을 전 국회의원 총복지부장, 최기동 전 목포시의회 의장, 민영삼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기동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역시 기초의회 2014년 폐지

국회 행정체제개편 협의...군정·구청협의회 설치키로

오는 2014년부터 광역시의 기초의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난달 31일 밤 향후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군정·구청협의회를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전했다.

통합 시·군의 경우에는 기초의회가 유지된다. 동시에 특위는 특별시·광역시 내 과소 인구·면적의 자치구·군의 경우 적정규모로 통합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로 하여금 정하도록 했다.

내일부터 후보자·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3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3일부터 후보자,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며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위 내에서 조사기관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김정일 방중 초읽기...김정은 동행 여부 관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르면 1일 또는 2일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1일 "이르면 오늘 방중이라도 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정밀하게 위치(Watch)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일중 중국으로 월경(越境)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방문시 전용 특별열차편을 이용해 평양을 출발, 신의주~단동 루트를 통해 국경을 넘은 뒤 선양을 거쳐 베이징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Large advertisement for '국회국정'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abou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